

玄鎮健 小說의 構造分析

— 〈운수 좋은 날〉을 中心으로 —

全 良 淑*

目 次

- | | |
|---------------------|------------|
| I. 緒 言 | IV. 文體의 特質 |
| II. 〈운수 좋은 날〉의 時間構造 | V. 結 語 |
| III. 스토리構造 分析 | |

I. 緒 言

韓國近代小說史에서 玄鎮健은 “短篇小說의 모형을 확립한 作家”¹⁾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단편은 장편보다 표현기교가 뛰어나고 압축된 구조를 지녀야 하므로 그가 短篇에 뛰어나다는 것은 바로 技巧가 세련되었다는 논의가 가능하다. 곧, 현진전이 기교주의작가라는 것은 많은 文學史家들에 의해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언급은 그의 處女作인 〈犧牲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작품이 모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기교적인 세련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평가는 작품자체에 대한 分析보다는 그의 現實認

* 국어교육과 4년

1) 李在統, 「한국현대소설사」, 弘盛社, 1984, p. 285.

白 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2, p. 262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임.

識의 측면을 과대 평가한 데서 온 결론인 듯하다.

기교적인 측면이거나 아니면 현실인식의 측면도 결국은 작품자체의 분석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筆者는 현진건 소설에 나타나는 時間構造와 스토리構造를 分析해 봄으로써 그 기교적인 면의 성공여부를 점검하고 그의 소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소설의 구조는 作品的 總體的 意味와 效果를 成就시키려는 작가의 다양한 기법이 그 자체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S. 리몬-케넨은 허구적 서사물을 '스토리(story)', '텍스트(text)', '서술(narrative)'이란 기초적인 국면들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중 '스토리'는 서술된 사건을, '텍스트'는 구술 또는 기술된 담화 즉, 우리가 읽는 대상을 말한다. 또한 '서술'은 제작의 행위 또는 과정을 일컫는다. 허구적 서사물의 이 세 가지 국면 가운데 독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 뿐이며, 이 텍스트에 의해 서독자는 스토리와 서술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²⁾ 따라서 문학작품 연구에서 텍스트를 통한 스토리 또는 서술에 대한 연구는 그 작품의 총체적인 연구틀 가능하게 해주며, 스토리의 텍스트화 과정인 서술에서 그 작가의 독특한 文體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한편 小説은 時間藝術의 범주에 든다. 人間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생활하고 사유하며, 그리고 죽어간다. 즉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설은 人間の 表現인 동시에 그 자체가 시간 속에서 생산되고 읽혀지는 예술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설은 時間藝術이라 할 수 있으며, 소설에서의 時間分析은 소설이해의 보다 본질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現代에 들어오면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새로워짐에 따라 문학에서의 시간양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J. H. 롤리는 英小説의 時間을 宇宙의 時間, 歷史的 時間, 實存的 時間³⁾으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으며, S. 리몬-케넨은 順序, 持續, 頻度⁴⁾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本稿에서는 현진건의 대

2) S. 리몬-케넨(최상규역), 「小説의 詩學」, 文學과 知性社, 1985, pp.11~17. 참조.

3) J. H. Raleigh(최상규역), 英小説의 時間의 새종류, 「現代小説의 理論」, 大邦出版社, 1986, p.477. 참조.

4) S. 리몬-케넨(최상규역), 앞글, pp.73~91. 참조.

표적 단편의 하나인 <운수좋은 날>을 중심으로 스토리-시간, 텍스트-시간의 구조를 順序, 持續, 頻度의 시간양상에 중점을 두어 살피고, 다음은 스토리 만을 따로 떼내어 분석함으로써 그 구성의 특색을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시간구조 분석과 스토리구조 분석에서 추출되어진 문체의 특질을 살핌으로써 지금까지 주로 사회학적 접근 방법에 의해 평가되어지던 현진건 소설을 작품자체를 중시, 그 구조와 기교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II. <운수좋은 날>의 時間構造

玄鎭健의 <운수좋은 날>은 1924년 6월 「開關」 48호에 발표된 短篇으로서 빈민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한 종래의 평가는 “적라라한 현실과 직면하여 폭로의 비애를 그린 작품”⁵⁾이라는 견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대체로 당시의 현실문제와 관련시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의 구조 측면에서 “反轉의 반어적인 구조의 소설”⁶⁾이라는 주장도 보인다.

이 작품이 도시 빈민층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의 외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즉 이야기의 형식에 관심을 집중하여 연구하는 것이 작품의 구조와 기교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時間構造를 中心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시간은 인간의 경험세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범주 중 하나다. 이 시간이 소설에서는 스토리의 사건성분의 텍스트내 배열로서 스토리나 텍스트의 구성요인이 된다. 스토리-시간은 多線性이 가능하나 텍스트내 제요소의 배열인 텍스트-시간은 단일방법적이고 역전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線綫的이 된다.⁷⁾

5) 白 鐵, 앞글, p.267. 이외에도 현실문제와 관련된 평가는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李在鎭, 앞글, p.292.

崔元植, 玄鎭健의 <운수좋은 날>, 「한국현대소설작품론」, 문장사, 1981, p.102.

6) 李在鎭, 交叉展開의 反語의 構造, 「玄鎭健의 소설과 그 시대인식」, 새문사, 1981, p. I-116.

7) S. 리몬-케넨(최상규역), 앞글, pp.69~73. 참조.

따라서 텍스트-시간과 스토리-시간은 단일한 스토리나, 한 작중인물만을 다루는 소설에서는 일치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둘 이상이 되면 사건들이 동시성을 띠게 되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텍스트-시간은 '진술의 시간'(이야기하는 시간), 스토리-시간은 '허구의 시간'(이야기 되는 시간)이란 의미가 된다. 本稿에서는 이들을 진술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이란 용어로 S. 리몬-케년이 분류 제시한 '順序', '持續', '頻度'의 세 측면에서 <운수좋은 날>의 시간구조를 분석해 보겠다.

1. 順序

진술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 양상을 순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順次的인 경우가 많겠지만 거기에는 逆轉現象도 나타난다. 逆轉이란 진술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 순서에 時間錯誤가 생기게 되어 사건 흐름의 자연적인 順序가 파괴될 때 일어나는 時間技法을 말한다. 즉, 진술의 시간은 一次元的인데 반해 허구의 시간은 多次元的이기 때문에 이 두 시간개념은 평행불가능이 되어 시간착오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逆轉에는 追想과 豫測의 두가지 기법이 있다. 추상은 먼저 일어났던 일을 나중에 이야기 해 주는 것이고, 예측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 해 주는 것이다.⁸⁾

玄鎮健의 작품 기법을 분석할 때, 하나의 구조 가운데서 시간을 단위로 하여 일어나는 사건의 덩어리를 구분해 보면, 그 단위들 상호간에 일으키는 진행상의 역전현상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곧, <운수좋은 날>에서 진술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 양상을 순서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1>

구분 순서	진술의 시간	허구의 시간
1	김침지 운수좋은 날을 맞음(서술시발점. 현재)	담포전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림
2	아침 댓바람에 첫번째 손님에게 삼십전,	열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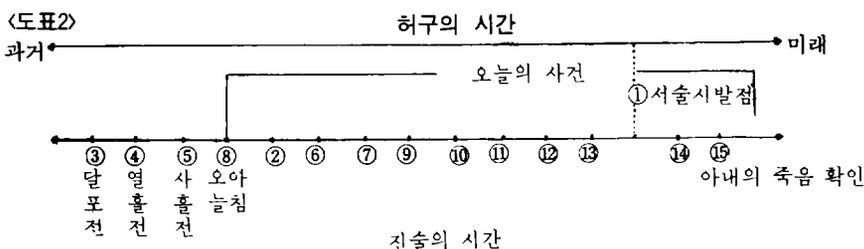
8) T. Todorov(곽광수역), 「構造詩學」, 文學과 知性社, 1983, pp. 65-66. 참조.

	두번째 손님에게 오십전 받음(현재 과거 8) ⁹⁾	
3	달포전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림(과거 3)	사흘전
4	열흘전 아내가 조밥을 먹고 기침이 심해짐(과거 2)	오늘 아침
5	사흘전 아내가 설렁탕 국물 먹고 싶다고 함(과거 1)	아침 댓바람에 제일, 제이 행운 잡음
6	팍싹전을 손에 쥔 김침지 마음이 푼푼해 함(현재과거 7)	팍싹전을 손에 쥐고 푼푼해 함
7	세번째 행운에 김침지 주저함(현재과거 6)	세번째 행운에 김침지 주저함
8	오늘 아침 아내 만류 뿌리치고 나옴(현재과거 9)	아내 얼굴 어른거림
9	아내 얼굴 어른거림(현재과거 5)	일원오십전 요구
10	김침지 일원오십전 요구(현재과거 4)	아내와 개똥이 영상 나 타남
11	아내의 움푹 들어간 눈과 개똥이 곡성 들은 것 같음(현재과거 3)	일원 오십전 받음
12	손님에게 일원 오십전 받음(현재과거 2)	네번째 행운 잡음
13	네번째 행운 잡음(현재과거 1)	우수 좋은 날을 맞음(서술시발점)
14	귀가길에 친구와 술을 마시다 아내가 죽었다고 울기 시작함(현재미래 1) ¹⁰⁾	친구와 술을 마시다 아내가 죽었다고 함
15	귀가후 아내 죽음 확인하고 통곡(현재미래 2)	귀가후 아내 죽음 확인

9) 현재과거란 용어가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오늘 일어난 사건 중 서술시발점보다 이전이란 뜻으로, 金亭子가 「韓國近代小說의 文體論的 研究」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현재미래란 용어도 적절하지 않으나, 오늘 일어난 사건 중에서 서술시발점보다 이후란 뜻으로 金亭子가 사용한 용어를 따름.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김첨지가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의 시간양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시간구조를 지니는 작품이다. 반면 허구의 시간양상은 달포전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때에서부터 오늘 저녁 아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서술분포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분포로 표시된다.



위 <도표2>에서 진술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 사이의 순서차이에서 발생한 逆轉現象은 크게 ①에서 ②, ②에서 ③, ⑤에서 ⑥, ⑦에서 ⑧, ⑧에서 ⑨ 등 다섯 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전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울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나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안에서 인력거군 노릇을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조혼날이었다.¹¹⁾

② 문안에(거커도 문밖근 아니지만)들어간담시는 압집마마님을 전차길까지 …<중략>… 태여다 주기도 되었다.

천번에 三十진, …<중략>…알는 안해에게 설렁탕한그릇도 사다줄수잇슴이다.
(p.139)

③ 그의 안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팜도 굶기를 먹다. 심히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한첩 써본일이업다.

①에서는 김첨지에게 오랫동안에 '운수좋은 날'이 닥쳤음을 이야기하고 ②에서 그 운수 좋게 된 동기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순서상의 逆轉이 이루어

11) 憑虛, <운수조혼날>, 『開闢』 48호, 1924. 6., p.139. 이하 면수만 표시한다.

지고 있다. 또한 ③에서는 아내가 달포전부터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어 ②의 상황인 오늘 아침과는 시간상 과거로 逆轉現象이 여기서도 등장한다.

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데는 물리지 안했다. 사흘전부터 …〈중략〉…못 사주는 마음이 식언치는 안했다. (p. 140)

⑥ 인제 설렁탕을 사줄수도있다. 알는 어미겨태서 배꼽하 보채는 개똥이(세살먹이)에게 죽을 사줄수도있다—八十전을 손에 쥔 김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p. 140)

③에서 ⑤까지는 아내의 아픔이 악화되는 상황을 그리다가 ⑥에서 팔십전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김침지가 나타나고 있어 역전현상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⑦ 그러나 그의행운은 그걸로 근치지안했다. 쌀과비스물이…〈중략〉…이상하게도 쏘리물맛물고 덩비는 이 행운압혜 죽음 겁이 낮슴이다. (pp. 140~141).

⑧ 그러고 집을 나올제 안해의 부탁이 마음이 케이었다. —압집 마마한테서 불러려왔슬제…〈중략〉…환자는 붓잡을드키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말라도그래. 그러면일죽이 들어와요』 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팔랐다. — (p. 141.)

⑨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먹으로 썬손 유달리 큼직한눈 울듯한 안해의얼굴이 김침지의 눈압혜 어른어른하였다. (p. 141.)

또한 ⑦에서 세번째 행운이 닳쳤음을 진술하다가 ⑧에서는 아내가 아침에 나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던 일을 회상함으로써 역전현상이 되고 있으며 ⑧의 아내에 대한 회상이 ⑨에서는 세번째 행운의 순간으로 돌아와 정거장에 가자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아내의 영상이 보인 것을 진술하고 있어 역전현상이 다시 나타난다. 이와같이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은 크게 다섯 번의 역전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③, ④, ⑤를 제외하면 모두 오늘 일어난 사건으로 〈운수좋은 날〉에서는 특히 '오늘'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시간구조 분석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결과는 진술의 방향이 미래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이다. 그 미래의 종착점이 아내의 죽음이긴 하지만 과거를 알려주는 방법은 미래로 진행되는 도중의 회상에서 과거를 해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현진건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으로 <貧妻>나 <슬픈 사회>, <墮落者> 등에서도 미래를 향한 사건에서 과거가 퇴고되고 있다.

<운수좋은 날>은 위 <도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시간구조가 하루동안 김침지가 겪은 사건의 진술로 되어 있어서 “단순구조로서의 사건의 직선적구조”¹²⁾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시간구조를 사실적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사실적 시간은 허구의 시간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i) 미래에 대한 신뢰와 ii) 자동적 삶의 태도¹³⁾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수좋은 날>의 경우 사실적 시간양상에서 보이는 일반적 경향인 미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被動的인 입장에서 自然時間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시간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持續

진술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을 持續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표상된 행동이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간과 그것을 환기하는 진술을 읽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前者인 텍스트-지속의 시간은 사실상 계측할 방법이 모호하고 後者는 계측은 가능하지만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표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持續의 측면을 스토리 내의 지속과 그것에 소요된 텍스트 길이 사이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기로 한다.

持續의 범주에 넣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要約’과 ‘省略’과 ‘時間의 停止’ 技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要約은 진술의 시간이 허구의 시간보다 짧은 경우로, 허구의 시간에서 어떤 사건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존재할 가능성

12) 李在統, 交叉展開의 反語的 構造, 앞글, p. I-119.

13) 李昇薰, 「文學과 時間」, 二友出版社, 1983, pp. 180~181. 참조.

을 예상하게 될 때 그 존재의 기본적인 사실과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전체의 이야기가 단축될 때를 말한다. 省略은 시간의 경과만 드러내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의 진술이 절단되어 버리는 서술기법을 의미한다. 또한 시간의 停止는 진술의 시간은 있되 허구의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描寫'와 일반적인 '성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법¹⁴⁾이다.

〈운수좋은 날〉에서는 要約과 省略의 技法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시간의 停止인 描寫가 두 군데 보이고 있다. 묘사에서는 진술의 시간은 흐르나, 허구 속에서의 사건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 허구의 시간은 정지 혹은 зам속된다.

① 새침하게 흐린 물이 눈이 울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p.139.)

② 구역을나게하는 추기-뺨어진삭자리미테서 올라온몬지내, 뺨지안흔 기적우에서 나는 똥내와오줌내, 가지각색해가 케케히안진웃내, 병인의 뺨삼은내가석긴 추기가 무뎜 김침지의코를 질렀다.(p.149.)

停止態인 描寫가 많을수록 사건은 느리고 산만하게 진행되며, 묘사가 적을수록 사건은 빠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운수좋은 날〉은 묘사가 위의 ①, ② 두 군데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어 사건이 빠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동시대의 金東仁 소설에서는 흔하게 발견되는 요약과 생략의 기법이 현진건 소설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두 作家의 기법상 차이를 밝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3. 頻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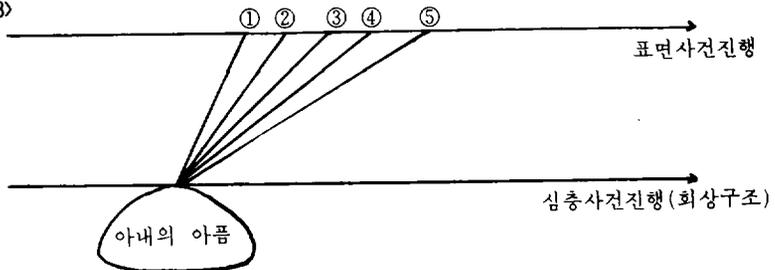
진술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 사이의 관계에서 빈도의 문제는 한 사건이 스토리 속에 나오는 회수와 그것이 텍스트 속에 서술되는 회수와 관계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만의 진술이 하나만의 사건을 환기하는 一回의 이야기, 여러 개의 진술이 하나의 같은 사건을 환기하는 多回의 이야기, 하나

14) 金亨子, 「韓國近代小說의 文體論的 研究」, 三知院, 1985, pp.120~133. 참조.

만의 진술이 여러 개의 사건들을 환기하는 反復的 이야기¹⁵⁾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복은 모든 점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적이지만 조금씩 상이한 맥락 속에 그 사건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은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운수좋은 날>은 여러 개의 진술이나 회상이 하나의 같은 사건을 환기하는 多回的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크게 현재 행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행운의 연속에서 앓아 누운 아내를 회상하는 회상의 상황으로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다. 확실히 오늘 김침지 자신의 상황은 행운의 연속이다. 그런데 행운이 이어질 때마다 김침지는 집에 누워 있는 아내를 회상한다. 이러한 대립구조를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3〉



①의 첫번째, 두번째 행운 뒤 80전을 받았을 때 김침지는 달포 전부터 앓아 누워 있는 아내를 회상한다. ②의 세번째 손님이 김침지를 불렀을 때도 오늘은 나가지 말아 달라던 아내를 회상한다. 일원오십전을 요구함으로써 아내의 영상을 물리친 김침지는 ③의 세번째 손님을 인력거에 태우고 가던 도중 집이 가까워지자 다시 아내를 떠올린다. 또한 ④의 네번째 행운이 지속되는 동안은 마음조차 초조해 오고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린다. 치삼을 만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인 ⑤에서도 아내의 영상을 지울 수 없어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고까지 말한다.

이처럼 <운수좋은 날>은 여러 개의 진술(회상)이 아내의 아픔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환기하는 데 집중되고 있어 多回的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행운의 연속과 병행해서 아내의 아픔에 대한 회상이 반복적으로 에스칼레이트(escalate)되면서 그 극점에 불행이 놓여 있는 것이다. 즉 표면의 흐름은 향상의

15) T. Todorov(곽광수역), 앞글, pp.67~68. 참조.

과정을 밟고 있으나 심층은 악화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면의 향상과정과 심층의 악화과정의 대립이 친구 치삼을 만나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 극대화되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심층구조의 승리로 귀결된다.

이러한 점은 김침지가 아내를 회상하는 장면이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악화된 상황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할 수 있다. 제일, 제이 행운인 ①다음에 아내를 회상할 때는 아파 누워 있으면서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는 아내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지만, 제삼 행운의 시작인 ②다음에서의 회상은 오늘은 나가지 말아 달라고 만류하는 아내를 회상한다. 또한 제삼 행운의 과정인 ③에서의 회상은 경련을 일으키는 아내와 개똥이의 곡성이었고 ④의 네번째 행운에서는 마음이 초조해지며 집의 광경이 자꾸 어른거려 결국 요행을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⑤의 선술집에서는 친구 치삼에게 아내가 죽었다고까지 한다. 이처럼 ①에서 ⑤까지 과정에서 그 회상의 심층구조는 악화의 과정이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의 '삼십전→오십전→일원오십전→육십전'의 행운은 '아내의 아픔→오늘만은 나가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아내→경련에 떠는 아내→요행을 바랄 수도 없는 상황→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 또는 배경설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표면적으로는 행운의 연속과정을 설정해 놓고, 회상의 장면에 아픈 아내를 등장시켜 반복적인 회상을 통해서 주인공과 독자가 행운의 과정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을 아내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비극으로 결말짓는 현진건의 소설기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Ⅲ. 스토리構造 分析

허구적 서사물을 '스토리', '텍스트', '서술'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S. 리본-케년의 입장에서 스토리란 진술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그에 의하면 스토리는 가공이나 분화가 되지 않는 재료가 아니라 그 구조적 성격, 곧 분리 가능한 성분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적인 관계를 갖는 조직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중

시한다. 따라서 내재적인 스토리구조는 記述上의 필요에 의해서는 따로 분리해 고찰할 수 있다¹⁶⁾는 것이다.

제Ⅱ장의 1. 順序에서 <운수좋은 날>을 허구의 시간으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 4에서 15까지가 ‘오늘’ 일어난 사건이며, 1에서 3은 5다음에 회상한 사건이다. 또한 서술시발점은 14이전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술시발점의 ‘운수좋은 날’은 귀가 길에 접어들기 전까지가 해당된다. 그렇다면 김침지에게 운수가 좋은 날로서의 ‘오늘’은 아내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설정이고, 김침지도 그러한 기대 때문에 마음이 푼푼해진다고 보여진다. 즉 김침지는 오늘 아침부터 운이 좋아 뜻하지 않게 돈을 많이 벌었으며,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항상 아픈 아내를 회상한다. 이 상황은 김침지가 오늘 번 돈으로 아내를 낫게 할 수 있다고 김침지나 독자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상황은 전체적인 스토리구조에서 보면 아내의 죽음으로 이끌기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며, 아내의 죽음을 더욱 극적으로 구성하는 효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운수좋은 날>의 스토리구조는 김침지가 오늘 의외의 행운을 맞아 많은 돈을 벌었으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그 돈을 쓸 곳이 사라져버려 오늘의 행운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린 순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김침지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오늘의 노력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려 노력하기 이전의 상황과 같이 아내에게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치밀성은 텍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텍스트의 구조도 冒頭와 끝의 통일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小説의 冒頭와 끝의 상응은 이야기의 構成에 一貫性이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소설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 나아가서는 자기의 세계관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수단이 된다¹⁷⁾는 지적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곧 <운수좋은 날>의 冒頭에서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열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나리는 날이었다. (p. 139.)

16) S. 리본-케넨(최상규역), 앞글, p. 19. 참조.

17) 金華榮, 「소설이란 무엇인가」, 文學思想社, 1986, p. 74.

와 같이 '눈이 올듯하더니'에서의 기대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라는 기대에 배치된 결과로서 나타나 있다.

한편 끝부분에 가서는

설령탕을 사다노았는데 왜 먹지를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피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조트니만……(p.150.)

에서 보는 것처럼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설령탕이 마련되었는데도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기대가 무산되어 버린 현실이 그려지고 있다. <운수좋은 날>의 텍스트에서 이처럼 冒頭와 끝이 一致하여 그 구성의 완벽성이 드러나는 것도 현진건의 소설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스토리구조와 텍스트구조의 치밀성으로 인하여 <운수좋은 날>은 그 구조의 견고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김침지가 자신에게 전개되는 행운의 상황이 아내의 죽음이라는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과정임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 진수가 발휘된다고 하겠다.

IV. 文體의 特質

문학작품에 있어서 작가 개인의 文體는 그 작가의 趣向, 習慣, 理想, 思想 등이 드러나며, 작가의 文學的 力量과 個性까지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시간구조와 스토리구조 분석을 통해 본 현진건의 作家的 特質로서의 文體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겠다.

첫째 그의 文體의 特質로서 動的 敘述樣相을 들 수 있다.

진술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은 서술방식의 성질에 따라 그 '서술의 속도'가 결정된다. 對話에 있어서는 진술부분과 허구부분 사이에 평형상태를 유지하며, 비교적 짧은 진술의 시간 동안에 그보다 더 긴 허구의 시간을 요약하는 間接語法에서는 몇 개든지 계속되는 사건이라도 줄여서 말하므로 이야기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나 작품의 分析에서는 허구의 시간은 희생시키면서도 진술의 시간을 길게 잡게 되므로 이야기 시간은 감속되거나 정지상태에 놓이게 된다. 풍경이나 물건, 인간의 심리 등을 묘사하는 동안에는 행동이 완전히 정지해 버

리기도 한다.¹⁸⁾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¹⁹⁾

〈도표4〉

	對話	間接話法	分 析
陳 述 이야기 속도	평 형	급 속	완 만
虛 構	말	줄 거 리	줄거리

〈운수좋은 날〉을 위 〈도표4〉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間接話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對話文章, 그리고 分析인 描寫는 겨우 두 문장이 나타난다. 곧 分析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間接話法이 많다는 것은 이 소설이 빠른 사건진행을 하고 있는 動的敘述 위주로 그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적서술기법은 현진건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으로 묘사나 생략의 기법보다는 간접화법 중심의 빠른 사건진행이 나타난다. 〈貧妻〉의 경우도 허구의 시간은 6년 전부터이나 사건의 중심은 3일만에 집중되어 있고 간접화법 중심의 빠른 사건진행으로 동적서술기법이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술勸하는 社會〉에서도 오늘 새벽 일의 서술이면서도 描寫가 세 군데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아내를 중심으로 한 간접화법 중심의 템포가 빠른 서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동적서술기법은 독서하는데 지루함을 주지 않고 사건을 생동감 있게 이끌어 나가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운수좋은 날〉을 읽으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김침지의 다음 행동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그의 文體의 特質은 아이러니칼한 文體라는 점이다.

作家的 觀點上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론 중 '토운(語調)'이라는 것이 있다. 소설에 있어서 토운이란 人物과 事件에 대한 作家的 態度이므로 작가는 여러가지 토운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작가가 사물을 대하는 이 토운에 따

18) Ibid., p. 207. 참조.

19) J. Ricardou(최상규역), 敘述의 時間과 虛構의 時間, 「現代小說의 理論」, 大邦出版社, 1986, p. 490. 참조. 敘述을 陳述이란 用語로 바꿔서 사용함.

라 소설의 양상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아이러니(irony), 새타이어(satire), 거리(distance) 등은 토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개념들인데 「운수좋은 날」은 아이러니가 많이 사용되는 특질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차에서 빚어지는 ‘언어의 아이러니’와 그러리라 믿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상황의 괴리에서 생기는 ‘상황의 아이러니’²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운수좋은 날〉은 이 두가지 측면의 아이러니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즉 김침지 욕설에서는 ‘언어의 아이러니’가 보인 반면, 결말의 급 전환에서는 ‘상황의 아이러니’로 전환되고 있어 아이러니 기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작품이다. 언어의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은 욕설들에서 파악될 수 있다.²¹⁾

①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수가업서 못먹어병, 먹어서병! 어썩란말이야. 왜 눈을 바루쁘지못해!” (p.140.)

② “이런 오라질년! 조팝도 못먹는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질알 울하게” (p.140.)

③ “아따 췌장마질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하네. 맛붓들고 안젓으면 누가 먹여 살릴줄 알아” (p.141.)

④ “이난장마질년 남편이들어오는데나와보지도앗해 이오라질년” (p.149.)

⑤ “이런 오라질년 주야장천 누어만잇스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널어나지못해” (p.149.)

⑥ “이년아 말을해 말을! 입이부터서 이오라질년!” (p.149.)

이상의 ①~⑥에서 보는 것처럼 김침지는 아내에게 욕설을 쉽게 내뱉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러한 욕설들에서 결보기와는 달리 김침지의 마음 속에

20) D. C. Muecke(문상득역), 「아이러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pp.28~29. 참조.

21) 金亭子, 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와 文體, 「인문논총」 제20집, 부산대학교, 1981, p.37. 참조.

는 아내에 대한 아낌과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의 문장들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아이러니스트가 완전히 물러서서 무의식적으로 그 스스로를 아이러니화 하는 인물을 창조하는 기법을 무의식적 '자기폭로의 아이러니'²²⁾라고도 한다.

한편 이 작품은 '상황의 아이러니'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소설의 묘미를 더해 주고 있다. 곧 시간구조에서 볼 때 과거로의 역전현상을 제외하고는 '행운의 오늘'에 해당되는 사건들로 연결된다. 이 오늘의 행운의 연장인 설령탕을 한 그릇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침지의 행복은 절정에 달한다. 그러나 그 행복을 같이 누리야 할 아내는 이미 죽은 뒤였다. 즉 김침지에게 있어서 '운수좋은 날'은 결국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작중인물의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나갔을 때를 '劇的 아이러니'²³⁾라 하며, 특히 「운수좋은 날」과 같이 悲劇的 결말로 매듭지어질 때 '悲劇的 아이러니'라 한다.

아이러니가 人生의 체험을 한 면만 보지 않고, 정반대의 측면도 동시에 보고 표현하는 서술기법이므로 아이러니를 내포한 작품은 그렇지 않은 작품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현진건 소설의 우수성은 증명되며, 그것은 <운수좋은 날>에서 뿐만 아니라 <B사감과 러브레터>, <술勸하는 社會>, <피아노> 등에서도 이 아이러니 현상은 공통적 특성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V. 結 語

이상에서 <운수좋은 날>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文學에서의 構造라 함은 하나의 문학작품에서 그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의 총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本稿에서는 주로 時間構造와 스토리構造에 대해서만 알아 보았다. 왜냐하면 文學은 時間藝術의 하나로서 小說에서의 時間構造 分析은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에서다. 그리고 <운수좋은 날>의 스토리가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생각되어 스토리 분석도 해봤으며

22) D. C. Muecke(문상득역), 앞글, p.95.

23) Ibid., p.103.

이러한 것들에서 추출되는 현진건의 작가적 특질로서의 문체에 대해서도 살펴 봤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時間構造 分析의 1. 順序 측면에서 <운수좋은 날>은 미래를 향해서 진행되는 사실적 시간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적 시간구조의 일반적 경향인 미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나타낸다고 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시간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2. 持續에서 생략이나 요약의 기법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나, 묘사가 두 군데만 나타나 비교적 빠른 사건진행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 頻度에서는 행운의 연속에서 자꾸 아픈 아내를 회상하여 여러 개의 진술이나 회상이 하나의 같은 사건을 환기하는 多回的 이야기임이 드러난다. 이 다회적 이야기에서 표면의 향상과정과 심층의 악화과정이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심층의 악화과정의 승리로 귀결되는 진행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스토리構造 分析에서 <운수좋은 날>의 스토리는 아내의 아픔에서 시작하여 아내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데, 김침지가 오는 행운의 상황에서 고전분투한 노력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결국 돈을 벌기 이전과 같이 아내에게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는 원점의 상황으로 돌아오는 순환적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세련은 텍스트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텍스트의 구성이 冒頭와 끝이 통일을 이루고 있어 그 기교의 견고함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째 文體의 特質에서는 間接話法和 對話가 많이 사용된 반면 분석은 극히 적게 사용되고 있어서 사건이 빠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동적서술양상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동적서술은 독서하는 데 지루함을 주지 않고 생동감 있게 사건을 이끌어 가는 구실을 한다.

문체의 특질로서 두번째는 아이러니칼한 문체의 사용이다. <운수좋은 날>은 언어의 아이러니와 상황의 아이러니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소설의 묘미를 더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수좋은 날>은 도시 빈민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김침지'란 한 인물을 통하여 그 계층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이와 같은 현실비판의 정신은 朴趾源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이 玄鎮健을 거쳐 蔡萬植, 金廷漢에게까지 이어지

고 있다. 그러나 현진건 소설의 우수성은 소재와 주제의 선택에서도 우수성이 나타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탁월한 기법으로 인하여 더욱 빛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 문학의 연구에서 주제적인 측면의 분석에만 치중했을 뿐 기법과 구조에 대한 분석은 등한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래의 소설연구는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 측면의 연구가 현진건의 다른 소설에도 요망된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 金亭子, 「韓國近代小說의 文體論의 研究」, 三知院, 1985.
 _____, 「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와 文體」, 「인문논총」 제20집, 부산대학교, 1981.
- 金華榮, 「소설이란 무엇인가」, 文學思想社, 1986.
- 白 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2.
- 李昇薰, 「文學과 時間」, 二友出版社, 1983.
- 李在銑, 「한국현대소설사」, 弘盛社, 1984.
 _____, 「交叉展開의 反語의 構造」 「玄鎮健의 소설과 그 시대인식」, 새문사, 1981.
- 李在銑, 趙東一編, 「한국 현대소설 작품론」, 문장사, 1981.
- 玄吉彥, 「玄鎮健小說研究」, 한양대학교 출판부, 1984.
- Brooks, C. & Warren, R. P.,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 1959.
- Kenan, S. R. (崔翔圭譯), 「小說의 詩學」, 文學과 知性社, 1985.
- Muecke, D. C. (文祥得譯), 「아이러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Raleigh, J. H. (崔翔圭譯), 「英小說과 時間의 세 종류」, 「現代小說의 理論」, 大邦出版社, 1986.
- Ricardou, J. (崔翔圭譯), 「敘述의 時間과 虛構의 時間」, 「現代小說의 理論」, 大邦出版社, 1986.
- Todorov, T. (郭光秀譯), 「構造詩學」, 文學과 知性社, 1983.
- Wellek, R., & Warren, A., (金秉喆譯), 「文學의 理論」, 乙酉文化社, 1985.